

서울 관광명소의 장소적 특성

- 비학술문헌을 중심으로 -

박수지*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일제가 정착되면서 도시민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에 일상 생활권에서 가까운 거리의 이색적인 명소를 탐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들 여가활동의 장소들은 진부한 일상적 생업의 공간에서 벗어나 탈일상의 장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간다는 면에서 생활 속의 관광명소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들 관광명소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일상공간과는 차별성이 뚜렷한 '탈일상'의 장소들이며, 관광명소들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 선택하기도 하지만, 공유되는 정보들 속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정보매체인 비학술문헌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선�했던 서울 관광명소의 장소적 특성을 연구하여 동시대 사람들이 희구하는 장소의 원형적 매력을 발견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시경관 연구에서는 대표경관, 이미지, 장소성 등 유사한 주제로 시민들의 인지상태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대체적으로 보아 주로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산, 강, 문화재, 건축물 등 가시적 성격이 강한 랜드마크 급들의 경관요소들이 언급되었던 반면(윤인규, 1993; 한은실 등, 2006), 최근의 연구에서는 전통거리나 전통주거지, 문화지구, 시장 등 역사·문화적 성격이 강한 거점적 활동장소 내지 도시관광의 명소들이 추가, 대체된 것(임승빈 등, 2011)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고, 주로 빈도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인지하는 도시경관요소들의 유형과 분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개 요소들의 장소적 매력과 요인의 규명에는 관심을 덜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보다 계획적,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문조사결과의 계량적 분석에서 나아가, 장소체험 등 질적, 내용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저자와 시민들의 관광체험에 근거하여 쓰여진 관광안내문헌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등장한 관광명소들의 추천 빈도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서울 관광명소의 장소성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¹⁾. 본 연구에서는 장소를 구성하는 외관, 조망 등의 가시적 부분과 용도, 활동, 역사문화적 의미 등 체험적 부분을 포괄하여 장소의 총체적 성격과 그 매력요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1. 관련이론연구

렐프(Relph, 1976)는 그의 독보적인 장소연구에서 가시적 측면과 체험적 측면인 사회·행태적 측면을 결합시켜 장소의 본질까지 탐구하는 장소적 경관연구를 하였다. 그에 의하자면 장소의 정체성은 물리적 외관, 사회문화적 활동과 의미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관광의 매력성²⁾에 대하여 Ritchie and Zins(1978)는 일반적 요인으로 자연경관, 접근 용이, 오락 및 쇼핑시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전통, 공예품, 역사와 종교 등의 요인을 강조하였다. Coltman(1981)은 자연환경 요인으로서 자연경관, 문화적 시설요인으로 쇼핑, 오락시설, 인위적 매력물로 스포츠 등을 강조하였다.

관광지 이론에서 언급된 매력의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렐프가 제시한 장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시적 측면과 체험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자원, 이외 도시적 시설과 체험활동이 관광명소의 매력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장소성의 구성요소인 물리적

와관, 활동, 의미와 일치한다.

2. 분석의 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였던 보편적 경관이론과 관광지의 매력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관점은 관광명소에서 거시적으로 기본적인 방문욕구에 대한 부분, 중시적으로 주변과의 맥락, 미시적으로 각 장소의 경관특성에 대하여 한국적 경관특성에 맞게 가시적 측면과 체험적 측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비학술문헌에 대한 빈도와 내용분석, 현장분석에 따른 연구자 답사 관찰·분석과 방문자 심층인터뷰로 다각도로의 접근으로 분석한다.

III. 관광명소에 대한 문헌연구

1. 연구대상 비학술 문헌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학술문헌은 여행안내도서 10권과 여행잡지 2권, 스마트기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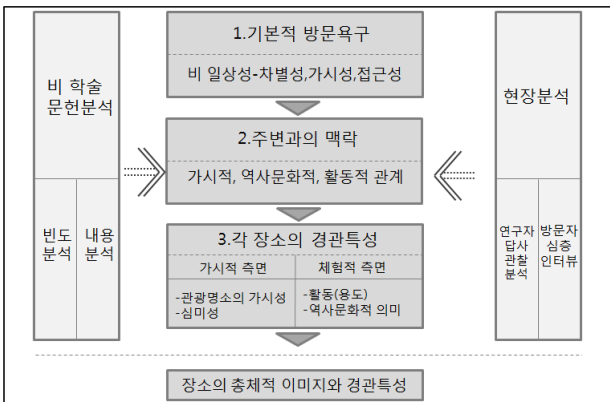


그림 1. 분석의 틀

표 1. 조사대상 문헌

비학술문헌	제목	
여행안내도서 (총 10권)	유철상 지음, 2012, 서울여행바이블 /외 9권	
여행잡지 (총 2권)	여행스케치 2012-03월호: 뻔한 서울? Fun한 서울! /외 1권	
홈페이지(1)	서울시 관광문화 홈페이지 http://www.visitseoul.net	
스마트기기 (총 7자료)	어플리케이션 (4)	국내여행총정리, GREATBLUE INC / 외 3자료
	E-book 서울매거진(3)	서울관광가이드북, 서울특별시 / 외2종
총계	20자료	

가지이다. 여행안내도서는 최근 5년간 교보문고의 검색어 '여행/기행→국내→서울, 경기→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하였다.

2. 명소의 경관유형별 분류

자연형 관광명소는 세부적으로 면적 자원인 산과 선적 자원인 강, 하천의 경관요소, 근린공원, 숲길, 수목원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역사형 관광명소는 점적자원의 문화재에 해당되는 궁궐, 사찰, 성곽, 그리고 면적자원의 역사마을과 선적인 가로에 대하여 세분하였다. 생활문화형 관광명소로는 상업지구와 문화, 예술이 혼합된 특성을 띄고 있는 문화예술지구와 문화가로, 그 밖에 상업지구와 가로, 시장 등으로 세분하였다.

3. 관광명소의 빈도분석에 의한 인지도 순위

관광안내서에 등장하는 서울 관광명소들의 빈도분포상의 특징을 아래의 표를 통해 분석하자면, 세 유형의 총 장소의 수와 빈도수 합계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자원들이 유형별로 균형을 맞추며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역사형 관광명소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서울의 장소적 정체성이 역사도시의 성격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자연형 관광명소의 1, 2위는 기존의 시민 대상 대표경관 설문조사결과와 일치하는데, 1위인 남산은 그 위치적 중심성과 가시성, 그리고 역사성이 복합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생활문화형 경

표 2. 관광명소의 유형별 분류

대유형	세부유형
자연형 관광명소	산(도시자연공원), 강·하천(수변공원), 근린공원(수목원)
역사형 관광명소	궁궐, 사찰, 성곽, 역사마을, 가로
생활문화형 관광명소	문화예술지구(문화가로, 공공광장), 상업지구(가로, 시장)

표 3. 유형별 관광명소의 빈도 순위

유형별	순위별 5곳 선정	소계
자연형 관광명소	남산(14), 한강(12), 홍릉수목원(10), 청계천(9), 하늘공원(8), 양재천(8), 서울숲(8), 선유도공원(8), 올림픽공원(6), 북서울꿈의숲(6)	10곳 총 89회
	덕수궁(12), 경복궁(11), 윤현궁(11), 창덕궁(9), 서울성곽(8), 봉은사(6), 암사동선사주거지(7), 서촌(7), 몽촌토성(6), 인사동(5), 북촌한옥마을(5), 남산골한옥마을(5)	12곳 총 92회
생활문화형 관광명소	이태원(12), 대학로(12), 홍대(11), 동대문시장(10), 명동(8), 압구정·청담동(7), 노량진수산시장(7), 남대문시장(6), 서울약령시(6), 광화문광장(6), 서울광장(5)	11곳 총 90회

관명소에서 5위를 한 명동과 인접되어 있는 주변백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강은 특히 최근 들어 점점 시민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경관자원인데, 강남이 급성장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최근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한강변의 공원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시민의 다양한 이용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형 관명소 중에는 궁궐들이 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면적 규모와는 관계없이 덕수궁이 최우위를 보이는 것은 도심상업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가시성,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지역과 경관적, 용도적 대비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생활문화형 관명소는 도시민의 생활현장에 인접해 있다는 위치적 요인도 있었으나 실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다양성이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이태원상가는 이국적 경관과 음식, 종교 등 다양한 이국문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요인일 것으로 추측되고, 2위 대학로와 3위 홍대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체험이 관광장소라는 것이

일상적 생활과 차별화된 큰 매력요인이 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4. 관광명소의 세부장소들과 내용분석

각 관광명소들은 보통 관광안내서에 여러 세부장소들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세부장소들의 출현 빈도의 우선순위와 내용분석을 통해 각 관광명소의 주된 장소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표 4, 표 5, 표 6 참조).

- 주 1.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오프라인의 관광안내서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도시민의 전연령층을 상대하기보다는 요즘 도시내 장소들의 주된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20~30대의 청년층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선호장소와 매력요인들이 청년층들의 취향에 치우칠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 주 2. 관광현상 요소 중 한가지로서 타 지역이나 타국의 경관이나 문물 등을 구경, 견문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한다(김정준, 2009).

표 4. 자연형 관광명소의 내용분석(빈도 5순위 까지)

유형분류	관광명소 순위(빈도)	전체내용 발췌	세부장소	장소별 내용 발췌
			순위(빈도)	
자연형 관광명소	1. 남산 (14)	-눈을 감고 서울을 상상했을 때 떠오름 -서울 한복판에서 평, 다람쥐를 볼 수 있음 -서울 한가운데 있는 숲(접근성 좋다) -남산에 얽힌 역사, 풍수지리상 중요한 산 -최고의 전망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 -외국인의 관광명소	1. N타워(11) 2. 산책로(8): 북측산책로 4, 산책길 3, 벚꽃산책길 1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서울시내 한눈에 감삼, 서울의 야경 -외국인의 관광명소 -북측산책로: 차량통행 금지여서 편안함, 자연을 느끼기 좋음. -곳곳에 마련된 전망테라스 -남측순환산책로: 소나무 숲 나무침대 삼림욕
	2. 한강 (12)	-서울 중심부의 큰 물줄기 -삶의 휴식처이자 자연을 만나는 비상구 -12개 지구로 나뉘져 있는 한강은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 -스포츠 레저의 천국 -현대의 풍류(유람선 등) -강변도로나 올림픽도로에 막혀서 접근하기 힘들	1. 반포한강공원(11) 2. 여의도한강공원(5)	-달빛무지개분수(3): N타워 불빛과 어우러짐. -세빛둥둥섬(3): 3개의 인공 섬의 조명이 한강의 진수를 느끼게 해 줌, 세계 최초로 물위에 떠 있는 건물 -수목, 카페, 보트장 등 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짐. -한강둔치와 여의도공원이 지하보도로 연결 -조깅, 하이킹, 인라인스케이트 등 레포츠 마니아 모여 듬. -유람선 나루터: 유람선으로 서울 야경감상 -요트나루, 야외공연장(공연, 촬영)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국내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

표 5. 역사형 관광명소의 내용분석(빈도 5순위 까지)

유형분류	관광명소 순위(빈도)	전체내용 발췌	세부장소	장소별 내용 발췌
			순위(빈도)	
역사형 관광명소	1. 덕수궁 (12)	-중세와 근대가 잘 어우러짐 -고종 때 지은 서양식 건물이 특징 -수문장교대식: 서울 최고의 관광히트상품	1. 덕수궁돌담길(5) 2. 석조전 (덕수궁미술관: 5)	-서울에서 가장 운치 있는 길 -광화문연가 -아름드리 가로수와 돌담이 어우러진 멋스러운 장소 -석조전(3): 조선 왕조가 지은 마지막 궁궐 건물, -20세기 초 서양식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 -덕수궁미술관(2): (서관)도심 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2. 경복궁 (11)	-조선의 으뜸 궁궐 -일제시대 수난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에 매료됨	1. 경회루(6) 2. 근정전(5)	-경복궁을 대표, 조선 건축미학의 절정 -경복궁의 정원, 연못에 비친 화려한 모습 -백악산을 배경으로 장엄하게 서 있음

표 6. 생활문화형 관광명소의 내용분석(빈도 5순위 까지)

유형분류	관광명소 순위(빈도)	전체내용 발췌	세부장소	장소별 내용 발췌
			순위(빈도)	
생활문화형 관광명소	1. 이태원 (12)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거리 -서울 속의 작은 지구촌 -거리분위기가 이국적, 이색적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음. -낮과 밤의 풍경이 다름. -복합문화공간이 많다.	1. 이태원상가(6)	-외류전문상가 -이태원패션1번가, 보세옷상가 -트렌드세터들이 즐겨 찾는 쇼핑 타운
			2. 앤터가구거리(4)	-유럽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100여 개의 고가구점과 골동품점이 모여 있는 이태원의 명소
	2. 대학로 (12)	-젊음의 거리 -100개 이상의 소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서울대 있을 때부터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임.	1. 마로니에공원(6)	-문화 마당의 상징 -다채로운 거리공연
			2. 셋대박물관(5)	-자물쇠 박물관 -화려하게만 보이는 대학로 안에 오래된 건물과 추억

참고문헌

1. 국내여행총정리. GREATBLUE INC.
2. 권현지. 서울 100배 즐기기(2012-2013) City 100. 랜덤하우스.
3. 김숙현 등(2010) 서울여행사전. 터치아트.
4. 김영록, 박미경(2011) 주말이 기다리지는 행복한 걷기여행-서울, 수도권. 터치아트.
5. 김한배, 이규목(1993) 도시경관연구의 실증적 인간주의적 측면. 국토계획 28(4): 11.
6. 김한배(1998) 우리도시의 얼굴 찾기. 태림문화사.
7. 대한민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한국관광공사제공).
8. 박선희, 김연금(2011) 1인 미디어 블로그가 포착한 선유도공원 경관. 한국조경학회지 39(3): 64-73.
9. 박희락, 김기호(2011) 서울 도심부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세대 간 장소인식 비교연구 -2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115-127.
10. 서울 베스트 100. 서울특별시.
11. 서울관광가이드북. 서울특별시.
12. 서울관광지도(2011).
13. 설은영, 조은영, 장치선, 최경애(2011) 서울, 여자가 걷기 좋은 길. 그리고책.
14. 손성일, 강세훈(2011) 서울 사계절 걷고 싶은 길 110. 비타복스.
15. 양지혜, 김경배(2012)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 방법론 연구-서울 정동 덕수궁 증명전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
16. 어디갈까. (주)모바일페이스 라이프스타일.
17. 여행스케치. 뻔한 서울? Fun한 서울!. 2012년 3월호
18. 오세훈(2011) 오후의 서울산책. 미디어윌.
19. 월간여행마인드.
20. 윤영주, 정기범(2012) 시크릿 Seoul. 시공사.
21. 이규목(1988) 도시와 상징.
22. 이규목(2005)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미술책방.
23. 이영경(2006) 경관의 치유적 특질이 관광지 방문 선호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34(5): 1-13.
24. 이푸투안 지음, 구동희 옮김(2007)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5. 이하람(2010) 두근두근 서울산책(동네한바퀴 시리즈). 랜덤하우스코리아.
26. 임승빈(199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사.
27. 임승빈, 정윤희, 허윤선, 권유근, 변재상, 최형석(2011) 장소 경험 분석을 통한 도시 내 장소성 특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6): 46-56.
28. 주신하, 이송희(2012)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도시하천 경관특성 분석-청계천과 양재천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7(4): 49-63.
29. 허한나(2012) Mad for Seoul 서울에 취하다. 조선 앤 북.
30. Appleton, J. H.(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Wiley.
31. i Tour Seoul. Seoul Tourism Organization.
32.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 London: Pion Ltd.
33. Walmsley, D. J.(1988) Urban Living. N.Y. Longman Group uk Ltd.
34. http://www.visitseoul.net